

## “급변하는 교육 제도 이해하는 데 도움 돼요”



거주  
전남 여수  
소호동



자녀  
고2, 중2



구독 기간  
2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지역에선 정보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큰아이가 중2였을 때 어느 도서관에서 <내일교육>을 만났어요. 두 아이의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접할 수 있겠다 싶어 구독을 신청했어요.

###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교육이나 입시 정책의 흐름을 잡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요. 지역에선 학생부교과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내신에 비중을 두면서 학교 생활이나 수능 준비는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는데, <내일교육>에서 주요 대학은 교과전형에 교과 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짚어줬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빨리 짚어주고,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보다 깊이 분석해주는 기사를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읽게 돼요. ‘내신, 학생부, 수능을 골고루 신경 써야 선택권이 넓어지겠다. 선부르게 ‘올인’ 하거나 포기하는 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죠.

###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제도가 너무 자주, 크게 바뀌는 거요. 어찌됐건 지역은 정보를 소화하고 대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지점이 혹시 아이의 입시나 미래에 장애물이 될까 걱정스러워요. 최근 지역의사제 등 지역 육성 정책과 교육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에선 오히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빚어져요. 큰아이가 이공 계열에 관심이 커 영재학교에 진학했는데, 정부 정책이 발표된 후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특히 질 좋은 외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외부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진로 탐색이나 학습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잖아요. 다양한 지역·기업·대학에서 진행되는 진로 교육이나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길 바라요.

또 요즘은 정보가 널려 있다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선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받을 동동거리게 돼요. 〈내일교육〉이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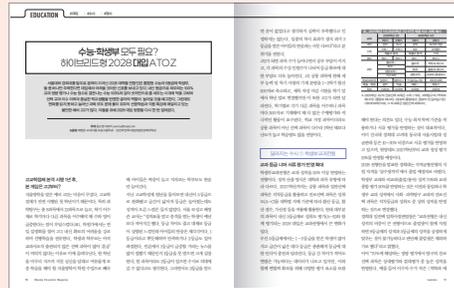
### Reporter's A/S

입시 정보 사이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내일교육〉 1148호에 게재된 ‘입시 정보 사이트 100% 활용법’ 기사를 읽어보세요. 대학 어디가, 대학 알리미 등 주요 입시 정보 사이트와 그 활용법을 소개했어요. 또 〈내일교육〉 홈페이지에서 고교 선택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학교 알리미’를, 대입 정보 활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디가’를 ‘제목’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관련 기사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본지 1148호  
‘입시 정보 사이트 100% 활용법’  
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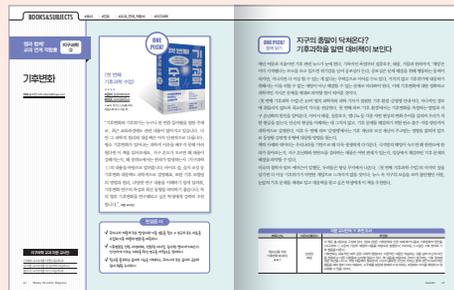
##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16호

### 수능·학생부 모두 필요? 하이브리드형 2028 대입 A TO Z

“큰아이가 고교학점제 첫 세대예요.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 기사에 관심이 많은데, 발 빠르게 경향성을 정리해준 기사를 보니 반기웠습니다. 큰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1216호

###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서\_ 지구과학 ③ 기후변화

“교과 연계 적합서’나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이슈 콕콕’ 등은 아이가 직접 학교생활에 활용하기 좋아요. 특히 ‘교과 연계 적합서’의 추천 도서와 ‘한 걸음 더’는 자기 주도적으로 관심 분야를 심화·확장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줘요.”